

베이비부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본, 경제적 준비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종열¹, 허철무^{2*}

¹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²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The Effect of Baby Boomer's Self-Efficacy, Social Capital, and Economic Prepar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ng-Ryul Lee¹, Chul-Moo Heo^{2*}

¹Ph.D. Candidate,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은퇴를 맞이하여 이들의 진로 전환이나 창업이 새로운 연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이 인생 2막으로 시작하는 창업에 대해 연구를 한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그중 유효한 204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설 검증은 AMOS 23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으로 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베이비부머의 창업과 관련한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다. 경제적 준비도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이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취 경험이나 롤 모델 학습 경험 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였다. 이들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성취 경험, 롤 모델 학습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 창업의도,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본, 경제적 준비도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baby boomers who started retirement, starting with the second phase of life.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focusing on factors that will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baby boomers. In order to test the study model, a questionnaire was surveyed on baby boomers, and among them, 204 people, which was valid, was used for analysis. The hypothesis test wa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the AMOS 23 statistical package.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self-efficacy and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entrepreneurial intention. Economic prepar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ith entrepreneurial intention.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the most influence on baby boomers'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the other hand, achievement experience and role model learning experience were the antecedent variables affecting self-efficacy. As a result of testing their relationship, achievement experience and role model learning experi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self-efficac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Baby Boomer,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 Efficacy, Social Capital, Economic Preparation

*Corresponding Author : Chul-Moo Heo(cmheo@hoseo.edu)

Received July 16,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September 15,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약 700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고령화로 인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과 실질 은퇴 연령 사이에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 사이에서 베이비부머들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길을 걷게 된다. Choi & Kim(2018)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비정규직으로 실질적인 은퇴 연령까지 근로 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1]. 한편, 생계형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통해 스스로를 고용하는 베이비부머들도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창업은 청년 창업과 달리 연착륙(soft landing)이 매우 중요하다. 실패는 본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가족에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2].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은퇴를 맞이하여 이들의 진로 전환이나 창업이 새로운 연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창업 관련 선행 연구들[3-10]을 살펴보면 이들 세대의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창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는 아직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된 연구 모형이나 방법, 연구 결과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설정된 연구 모형을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베이비부머와 창업

Park(2019)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이전의 노인 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11]. 교육 수준이 과거 고령자에 비해 높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거나 활동적인 특징을 보인다. 삼성생명은퇴연구소(2017)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들은 노동 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의지가 높다고 하며, 재정적 여유를 포함해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재취업 내지 창업을 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12].

베이비부머 창업은 청년 창업과 달리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정보, 기술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 등을 통해서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베이비부머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베이비부머 창업과 청년 창업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청년 창업의 실패는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베이비부머 창업의 실패는 재기 불가능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베이비부머의 창업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k(2019)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이 진로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회복 탄력성은 진로 전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9]. Kang(2018)의 베이비부머 창업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적 준비도는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트워크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Table 1. Previous Stud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Researcher	Research Topics
Koo & Yi (2019) [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elf-Determination in Senior Entrepreneurs
Kim, Yim & Eum (2019) [7]	Importance of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eniors
Choi & Dong (2019)[2]	Impact of Personal and Social Preparation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Hwang & Nam (2019) [6]	Effects of the Opportunity Level of Senior Entrepreneurs on Business Performance in Korea, Japan and Singapore
Gil & Jeong (2019) [4]	Affects of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enior Generation
Park, Yang & Kim (2020) [5]	Effect of Active Senior's Career Orientation and Educational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Sahut, Mili & Gharbi(2015)는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 분석[14]하기 위해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 TPB)[15]을 활용하였다.

즉,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창업의도에 정(+), 유의한 영향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연구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TPB를 활용하고 있다[16,17].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베이비부머들이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재취업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창업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젠더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창업과 관련한 일부 연구가 있었지만,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미함에 따라 합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다. 다만, 경제적 필요성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18, 19]. 둘째, 이들의 연구들이 현상 진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셋째, 이론적 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획된 행동 이론 역시 많은 지에서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의 창업 의지를 설명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베이비부머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도출하여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2.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2.2.1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도

Bourdieu(1986)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 자산으로 개인 간의 협력을 통하여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22].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로 신뢰[23]와 네트워크[23,24]가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내용을 토대로 일부를 보완하여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공식 및 비공식 네트워크와 신뢰 등으로 구성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창업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인인 이유는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정보, 기술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Kang & Park(2017) 및 Lee & Lee(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도에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26]. 즉,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창업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고무되면서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2.2 경제적 준비도와 창업의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경제적 준비도를 노후에 필요한 생활 자금과 예상되는 수입액을 계산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하면 노후 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이나 질병, 고독 및 무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55~79세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원으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의 4배에 이르며 2014년 기준 노년층 인구의 절대 빈곤율은 30%에 이른다. 더구나 자산의 80%를 거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부동산 보유 가구의 대다수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준비도와 창업의도 간에는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영향 변수로 파악되고 있다[13, 18, 19]. 특히 Kang(2018)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준비도는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청년 창업과는 달리 베이비부머들은 인생 1막을 마치고 2막을 시작하는 단계로 경제적 준비가 잘되어 있다면 굳이 큰 기회일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큰 창업에 대한 의도 내지 의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제적 준비가 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취업을 생각할 수 있지만,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파도 속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셀프 고용으로서의 창업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2.2.3 성취 경험, 롤 모델 학습

창업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선행 요인으로 성취 경험(mastery experience)과 롤 모델 학습 경험(social modeling or vicarious learning)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20]. 창업은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므로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 경험과 타인으로 부터 배우는 롤 모델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Aure et al.(2019)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를 활용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즉, 성취 경험, 롤 모델 학습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도 창업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으로 성취 경험과 롤 모델 학습 경험을 설정하여 이들의 영향 관계도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2.3 매개변수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객관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이다[28].

창업 프로세스에서 자기효능감은 창업 의지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8]. 창업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을 창업 자기효능감(ES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으로 명명하여 창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창업 의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가는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더 크므로 창업 의지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한다[29].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창업에 관심이 많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 지원 제도, 창업 프로그램, 창업 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Boyd &}

Vozikis(1994)은 자기효능감은 성취 경험 및 롤 모델 학습과 창업의도 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29].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독립 변수로 시니어의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본, 경제적 준비도를 설정하였고, 종속 변수로 창업의도를 설정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 변수로 성취 경험과 롤 모델 학습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 설정

Bandura(1977)는 창업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선행 요인으로 성취 경험(mastery experience)과 롤 모델 학습 경험(social modeling or vicarious learning)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28]. Aure et al.(2019) 역시 성취 경험, 롤 모델 학습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와 같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성취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Independent Variables	Mastery Experience	Mastery experience, which is a process that helps an individual achieve simple tasks that lead to more complex objectives.
	Vicarious Learning	Vicarious learning provides an identifiable model that shows the processes that accomplish a behavior.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is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social groups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 shared sense of identity, a shared understanding, shared norms, shared values, trust, cooperation, and reciprocity
	Economic Preparation	Preparation for maintaining a stable retirement life by calculating the living funds and expected income for retirement
Mediating Variable	Self Efficacy	Self-efficacy is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believes that they can master a particular skill
Dependent Variabl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ntion to start a new business

가설2. Role 모델(대리) 학습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Aure et al.(2019)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창업에 관심이 많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 지원 제도, 창업 프로그램, 창업 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창업 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Park & Kang(2007)역시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였다[8].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Kang & Park(2017) 및 Lee & Lee(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와 같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자기효능감은 시니어의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사회적 자본은 시니어의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Kang(2018)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준비도는 창업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경제적 준비도는 시니어의 창업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설문 설계 및 조사

본 연구에서는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를 베이비 붐 세대(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였다. 총 215부 중 그중 유효한 204부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가설 검정은 AMOS 23을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으로 하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 활용된 변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며, Table 3은 측정 항목이다.

4. 연구 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구조 방정식에 의한 가설 검증에 앞서 분석 모형의 신

Table 3. Measurement Items

Variables		Measurement Items
Independent Variables	Mastery Experience	My approach has been useful in making major career decisions in the past
		Balance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different opinions in the past career choice decisions
		I have acted well on the course I have set in the past.
		In the past, I had the resources to gather enough information for career choice decisions
	Vicarious Learning	I tend to have a role model that is needed to make a startup decision
		I tend to have someone I admire to refer to for the information I need to make a startup decision
		Among the various entrepreneurial fields, there is a role model that selects entrepreneurship that suits my own interests and abilities
		I have a role model that can explain what kind of business start-up to start
	Social Capital	I know someone who can help me start a business
		I tend to have a network of people who can help me start a business
		I tend to have a reliable, informal network that will help me start a business
	Economic Preparation	Starting a business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family's economic problems(R)
It is difficult to sustain a living without starting a business due to the economic situation(R)		
Among the members of the family, there is no source of income to support the livelihood of the family other than me(R)		
Mediating Variable	Self Efficacy	I have the confidence to start a business whenever I want
		I tend to have a good reference for startups
		I have the latest skills related to the field I want to start a business
		I think my current level of education is sufficient for the field where I want to start a business
		I think my current conditions will appeal to investors enough
Dependent Variable	Entrepreneurial Intention	I am willing to start a business
		I have a plan to start a business
		I will try to start a business.

되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적합하지 않는 설문 항목들은 제거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크론바흐 α 값으로 검정을 하였다. 이 값이 모든 변인에서 .7이상일 때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취 경험 .768, 롤 모델 학습 .929, 자기효능감 .832, 사회적 자본 .894, 경제적 준비도 .791. 창업의도 .921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 결과 모두 .7이상으로 나타나 분석 모형에 사용된 변인들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어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여러 변수가 동일 구성 요소에 일치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판별타당성은 서로 독립된 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변수 간 상관성이 낮을수록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13].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5이상, factor loading값 .5이상, CR(Composite Reliability) .7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변수별 측정 항목들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모두 유의한 .6이상을 보였고 CR은 모두 .8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분산추출(AVE)은 모두 .6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집중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0].

판별타당성은 Fornell & Larcker(1981)에 의하면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보다 클 때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본다[31]. Table 2에서와 같이 AVE의 제곱근 값(음영 표시 값)이 각각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FL	t	p	CR	AVE	
ME	ME4	.688	Fix	.872	.632	
	ME3	.728	7.326			***
	ME2	.696	6.470			***
	ME1	.807	7.574			***
VL	VL4	.880	Fix	.933	.776	
	VL3	.893	17.953			***
	VL2	.857	16.575			***
	VL1	.874	17.218			***
SE	SE5	.766	Fix	.888	.615	
	SE4	.653	8.919			***
	SE3	.758	10.401			***
	SE2	.757	10.382			***

	SE1	.617	8.404	***		
SC	SC4	.798	Fix		.915	.782
	SC2	.918	14.649	***		
	SC1	.866	13.908	***		
EP	EP3	.694	Fix		.836	.630
	EP2	.611	4.389	***		
	EP1	.627	4.429	***		
EI	EI3	.874	Fix		.931	.819
	EI2	.882	17.092	***		
	EI1	.923	18.196	***		
$\chi^2/df = 1.589, RMR = .043, RMSEA = .054, GFI = .905, CFI = .952$						
ME = Mastery Experience, VL = Vicarious Learning, SE = Self Efficacy, SC = Social Capital, EP = Economic Preparation, EI = Entrepreneurial Intention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ME	VL	SE	SC	EP	EI
ME	.795					
VL	.400	.881				
SE	.319	.466	.784			
SC	.358	.565	.579	.885		
EP	-.163	-.239	-.349	-.251	.794	
EI	.259	.261	.362	.362	-.296	.905

4.2 가설 검증 결과

구조 방정식에 의한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활용된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검증 기준 값은 Hair et al.(1998), Woo(2017) 등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χ^2/DF , GFI, CFI, RMR, RMSEA 지수를 활용하였다[30, 32]. χ^2/DF 는 3이하, GFI, CFI는 .9이상, RMR .5이하, RMSEA .8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본 구조 방정식 모형의 경우 χ^2/DF 1.720, GFI .901, CFI .941, RMR .045, RMSEA .060로 모든 항목이 위의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다. 가설 검증은 AMOS 23을 활용한 구조 방정식으로 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취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 = .175, p < .05$). 따라서 가설1. 성취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Role 모델(대리) 학습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 = .413, p < .05$). 따라서 가설2. Role 모델(대리) 학습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시니어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 = .197, p < .05$). 따라서 가설3. 자기효능감은 시니어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시니어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 = .217, p < .05$). 따라서 가설

4. 사회적 자본은 시니어의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경제적 준비도는 시니어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²의 영향을 미쳤다($\beta = -.190, p < .05$). 따라서 가설5. 경제적 준비도는 시니어의 창업의도에 부(-)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시니어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경제적 준비도 순이다.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준비도는 비슷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Path	β	S.E.	C.R.	P	Results
ME → SE	.175	.100	1.985	.047	supported
VL → SE	.413	.063	4.614	***	supported
SE → EI	.197	.109	2.449	.014	supported
SC → EI	.217	.092	2.719	.007	supported
EP → EI	-.190	.099	-2.004	.045	supported

$\chi^2/df = 1.720, RMR = .045, RMSEA = .060, GFI = .901, CFI = .941$
 ME = Mastery Experience, VL = Vicarious Learning, SE = Self Efficacy, SC = Social Capital, EP = Economic Preparation, EI = Entrepreneurial Intention

4.3 가설 검정 결과에 대한 논의

이상의 가설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 경험과 롤 모델 학습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정(+)¹의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행동 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창업 자기효능감이 베이비부머의 창업 의도에도 유의한 정(+)¹의 영향 관계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성취 경험이나 롤 모델 학습 등을 통해 형성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를 활용하여 이들 관계를 검증한 Aure et al.(2019)의 연구 결과[27]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정(+)¹의 영향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다루었듯이 이는 베이비부머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정보, 기술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Kang & Park 및 Lee & Lee(2019)의 연구 결과 [25,26]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준비도는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ng(2018)의 연구 결과[13]를 지지하고 있다. 전술했듯이 베이비부머의 창업은 청년 창업과는 달리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단계로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굳이 큰 기회일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큰 창업에 대한 의도 내지 의향이 줄어들다는 것이다.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이 인생 2막으로 시작하는 창업에 대해 연구를 한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그중 유효한 204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설 검증은 AMOS 23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으로 하였다.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의 창업 관련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도에 정(+)¹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다. 경제적 준비도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²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이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취 경험이나 롤 모델 학습 경험 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였다. 이들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성취 경험, 롤 모델 학습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정(+)¹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 시사점으로 첫째, 부분적 이론적 틀인 계획된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16,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행동 이론을 베이비부머의 창업 의도에 적용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존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한국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창업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본, 경제적 준비도로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이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변인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한 점이다. 시니어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경제적 준비도 순이다.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준비도는 비슷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창업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성취 경험이나 롤 모델 학습 경험이 중요하다고 사회인지심리학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 이 부분을 베이비부머의 창업 자기효능감에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역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학술적으로 적용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실무적 시사점으로 첫째, 베이비부머의 창업은 청년 창업과 달리 연착륙(soft landing)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적 준비도 여하에 따라 창업 의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베이비부머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등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준비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창업 자기효능감의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4차 산업 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취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본인의 롤 모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베이비부머 예비 창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5.3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 정책,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최종 종속 변수를 창업의도에 두었는데 창업의도와 실제 창업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행동까지 포함하여 연구 모형을 구성해서 검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S. H. Choi & J. S. Kim. (2018). 50 60th Generation Job Safety Net for Unemployment and Retirement. *Issue & Analysis* (312), 1-25.
- [2] Y. A. Choi & H. L. Dong. (2019). The Impact of Personal and Social Preparation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6(3), 91-109.
- [3] B. H. Koo & H. T. Yi. (2019). A Study 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elf-Determination in Senior Entrepreneurs.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27(3), 29-45.
- [4] D. H. Gil & H. Y. Jeong. (2019). The Affects of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enior Gener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0(2), 79-97.
- [5] J. B. Park, Y. S. Yang, & M. S. Kim. (2020). The Effect of Active Senior's Career Orientation and Educational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285-301.
- [6] J. Y. Hwang & J. M. Nam. (2019).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Opportunity Level of Senior Entrepreneurs on Business Performance in Korea, Japan and Singapore : Moderating Effect of the Government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4(6), 271-293.
- [7] S. S. Kim, W. S. Yim, & K. S. Eum. (2019).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eniors using AHP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24(1), 19-36.
- [8] S. S. Park & S. I. Kang. (2007).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1(2), 187-204.
- [9] S. W. Park. (2019), A Study on the Career Transition for Babyboomer Retires : Based on The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5), 155-162.
- [10] T. Zhang. (2008). *Elderly Entrepreneurship in an Aging US Economy : It's never too Late. Serie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2,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 [11] C. H. Park. (2019), Analysis of Work and Leisure Relations after Retirement of Baby Boomers in Korea.

- Journal of Tourism Studies*, 31(3), 141-169.
- [12] Samsung Life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7). *People Who Work even after Retirement*. Samsung Life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Seoul.
- [13] K. L. Kang. (2018).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Reemployment Intentions of the Baby-Boom Generation*.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14] J. M. Sahut, M. Mili & S. Gharbi. (2015). Identifying Factors Key to Encourag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Seniors.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 32, 252-264.
- [15] I. Ajzen.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0.
- [16] I. Al-Jubari. (2019).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Testing an Integrated Model of SDT and TPB. *SAGE Open*. April-June, 1-15.
- [17] R. Eid, A. Badewi, H. Selim & H. El-Gohary. (2019). Integrating and Extending Competing Intention Models to Underst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enior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 + Training*, 61(2), 234-254.
- [18] Mirae Asset Research Institute. (2019). *5060 Jobs Nomads are Coming: 5060 Retired Reemployment Path Analysis*. Seoul : Mirae Asset Research Institute.
- [19] S. H. Kang. (2016). A Study on Reemployment Determinants, Job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of the Aged.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6(3), 117-140.
- [20] M. Perugini & R. P. Bagozzi. (2001).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 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1), 79-98.
- [21] M. Perugini & R. P. Bagozzi. (2004). The Distinction between Desires and Inten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1), 69-84
- [22] P. Bourdieu.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 Greenwood.
- [23] J. Y. Park. (2014).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the Effects of Mentoring*.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Seoul.
- [24] E. K. Kim. (2015). *The Effects of Individual Career Orientation and Preparation of the Old Ag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Network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Seoul.
- [25] K. L. Kang & C. W. Park. (2017). The Effects of Career Orientation on the Entrepreneurial Reemployment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Capital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177-189.
- [26] H. S. Lee & Y. G. Lee. (2019). The Impact of the Middle Ag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Reemploy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33-40.
- [27] P. A. H. Aure. et al. (2019). Understanding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pproach. *Organizations and Markets in Emerging Economics*, 10(1), 92-110.
- [28]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29] N. G. Boyd & G. S. Vozikis. (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30] J. F.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31] C. Fornell & 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32] J. P. Woo. (2017). *Concepts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Seoul : Hannarae Publishing Co.

이 중 열(Jong-Ryul Lee)

【장학원】



- 1980년 2월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 1999년 2월 : 숭실대학교 전자 및 컴퓨터공학과 졸업(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 2019년 2월 ~ 현재 : (사)창직교육협회 이사(위촉전문컨설턴트)
- 2019년 9월 ~ 현재 : 경기도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20년 4월 ~ 현재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영기술전문위원
- 2020년 6월 ~ 현재 : STMCR 스마트기술경영융합연구소® 대표
- 2020년 6월 ~ 현재 : 스마트마이스터(중소벤처기업부장관)
- 2020년 8월 ~ 현재 : ISO9001/14001 국제심사원
- 2020년 9월 ~ 현재 : 기술닥터(경기도지사)
- 관심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 스마트공장, 정보경영 컨설팅
- E-Mail : greatjr@hanmail.net

허 철 무(Chul-Moo Heo)

[상화임]



- 1982년 2월 :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학사)
- 2008년 2월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석사)
- 2014년 2월 :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2012년 5월 ~ 현재 : (사)벤처창업학회 부회장

- 2015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2017년 1월 ~ 현재 : (사)한국창업학회 부회장
- 관심분야 : 유통마케팅, 경영관리, 브랜딩, 정보경영, 글로벌 사업, ICT컨설팅
- E-Mail : cmheo@hoseo.edu